

# 광주, 폐렴 사망률 '최고' 암 발생률 '최저'

### 광주시 공공보건복지지원단 '2020 시민 올해의 건강' 보고 '폐렴 사망' 10만 명당 25.3명... '암 발생'은 269명 비만·흡연 2·3위인데 건강관리 소홀... 당뇨병 관리 시급 기대수명 83.9세... 보험료 상·하위 간 8.4세 차이 나

광주시가 전국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암발생률이 가장 낮은 반면 폐렴사망률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들은 흡연율과 비만율이 높음에도 걷기 운동은 잘 하지 않는 등 타 지역 대도시에 비해 건강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전남대학교병원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공공보건복지지원단이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주·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8개 특별·광역시의 건강수준을 분석·비교해 발

간한 '2020 광주시민의 올해의 건강'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지난해 5월 출범한 광주시공공보건복지지원단은 광주시의 공공보건으로 현황 분석,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보건정책 개발, 공공보건료계획 수립 등 광주 공공보건의료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0 광주시민의 올해의 건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의료이용, 건강행태, 건강결과 등 4개 영역별로 광주시민의 건강현황을 보여주는 33개의 건강지표를 활용해 산출한 통계 보고서이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암발생률의 경우 광주시가 10만명당 269명으로 8곳 중 가장 낮았으며, 1위인 부산(295명)보다 26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률은 10만명당 12.6명으로 대전(10.4명)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낮았다.  
반면 광주의 폐렴 사망률은 25.3명(10만명당)으로 가장 높아 8위인 울산(11.6명)보다 배 이상 많았으며, 만성폐쇄성 폐질환 예방가능한 입원율도 1000명당 19명으로 가장 높았다.  
또 건강 수준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비만과 흡연, 걷기분야도 열악한 결과가 나왔다. 먼저 비만의 경우 광주가 33.3%로 인천(35.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흡연율(19.6%)과 남자흡연율(36.8%)은 각각 세 번째를 기록했다. 걷기 실천율은 6위로 뒤처졌다.  
당뇨병 관리부문에서도 광주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예방가능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입원 실태를 나타내는 당뇨병 만성합병증 예방가능한 입원율이 1000명당 8.8명으로 가장 낮았다. 또 1년후

당뇨병 투약승용률과 1년후 당뇨병 조절률이 60.5%와 36.3%로 모두 가장 낮게 조사돼 당뇨병 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광주시민의 기대수명은 83.9세로 8곳 중 네 번째로 중간 수준이었다. 하지만 보험료 상위 20%와 하위 20% 집단 간의 기대수명의 차이가 8.4세로 격차가 가장 커, 소득수준간 건강격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 발간을 총괄지휘한 권순석(전남대 의대 교수) 단장은 "이번 보고서는 광주시를 중심으로 한 건강현황 자료는 이번 보고서가 사실상 처음"이라면서 "앞으로 광주시민의 건강지표를 통해 건강 증진의 대책을 마련해가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2020 광주시민의 올해의 건강' 보고서는 광주광역시 공공보건복지지원단 홈페이지(www.giph.or.kr) '알림마당'의 '지원단자료'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초3 문해력 집중 지원

###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한글 해득을 어려워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월 문해력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26일까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한글 해득, 유창성 등 최소한의 읽기와 쓰기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습지원 대상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거쳐 기초학력 전담교사·담임교사 협력수업, 방과 후 수업, 수업시간 중 일부 시간에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하는 개별화 수업 등에 참여한다.  
기초학력 전담교사 5명이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 학습지원 학생을 대상으로 문해력 진단·학습코칭·맞춤형 지도 등에 나선다.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학생지도 이외에도 담임교사와 협력해 학생지도 과정과 방법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지도가 가능하도록 컨설팅한다. 학부모와는 진단 결과와 개별화 지도 결과를 수시로 상담, 가정에서 연계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미세먼지 째깍마 수도권과 충남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5일 광주 북구청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 직원들이 북구 운암동 일대에서 살수차를 이용해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동신대, e스마트 모빌리티 캠퍼스 조성한다

###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상품 개발...국내 유일 체험 시티 조성도 추진

동신대학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전기자동차(EV)의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e스마트 모빌리티 캠퍼스 구축에 나선다.  
또한 동신대는 전남도와 나주시,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동신대와 나주를 미래 에너지와 만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체험 시티로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 등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동신대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메이커스페이스(에너지메이커스팜)와 협업해 오는 5월 말까지 '사용 후 배터리 스마트에너지캠퍼스'를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기차에서 사용한 배터리의 잔존 용량은 평균 70~80% 수준으로, 전기차 배터리로 계속 쓸 순 없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등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이용해 e스마트 모빌리티 캠퍼스를 구현할 방침이다.  
동신대는 에너지클러스터 내 메이커스페이스의 최첨단 시설과 장비로 지자체가 수거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e-모빌리티 기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이차전지 재활용 상품으로 개발하고, 동신대 스마트에너지캠퍼스에는 태양광 시설을 이용한 재사용 배터리 충전센터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이차전지의 수거·충전·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동신대 이차전지 재활용 스마트에너지 캠퍼스는 이차전지와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된다.  
동신대를 방문하면 현재 에너지융합대학 교수들이 개발 중인 재사용배터리를 장착한 자율주행 전동휠 세그웨이(두 발로 서서 타는 이륜기구)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캠퍼스를 돌며 이차전지 재활용 라인 체험, 빅데이터·블록체인을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융합 메이킹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경제를 살리자

### 광주·전남교육청 지역화폐 사용 늘리고 재정 조기 집행 독려

교육청들이 지역화폐 사용과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맞춤형 복지비 조기 집행과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 이용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시 교육청은 올해 지급된 맞춤형 복지비를 가급적 3월까지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맞춤형 복지비로 광주상생카드를 구매(충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상생카드 이용률을 높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 12일 전남도교육연구정보원 5층 합동강의실에서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등 6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현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상반기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모색했다.  
특히 조기집행 대상액 1조 2805억원 중 7442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 위해 성과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등을 1분기에 집행하고, 건설경기 활성화와 관련된 시설비 예산을 조기발주, 선금·기성금 지급을 확대해 상반기 조기집행을 최대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북구, 첨단2지구에 무료 공영주차장 조성

### 연제동 1026-1번지 110면

광주시 북구 첨단 2지구에 무료 공영주차장이 조성됐다.  
15일 북구에 따르면 연제동 1026-1번지 일원의 완충녹지 일부를 활용해 110면 규모의 친환경 노외주차장이 마련됐다.  
그동안 첨단2지구 내 420여 명의 소상공인과 산업단지 근로자들은 하루 평균 500여대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호소해 왔다.  
북구는 주차장을 우선 무료로 운영하고, 향후 운영상 문제점 발생 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차장은 완충녹지를 활용한 만큼 주차 면수를 최소화했고 잔여 녹지와 주차장 둘레에는 당초 계획보다 500여주 더 많은 1만 200여주의 수목을 식재해 완충녹지 기능을 유지하게 했다는 게 북구의 설명이다.  
주차장은 장애인·임상부·경형 및 환경 친화 전용면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면을 확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2,000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 MG 대광새마을금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화재·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요가·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지산지점 | 062)222-1431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